

# 일본의 양계를 돌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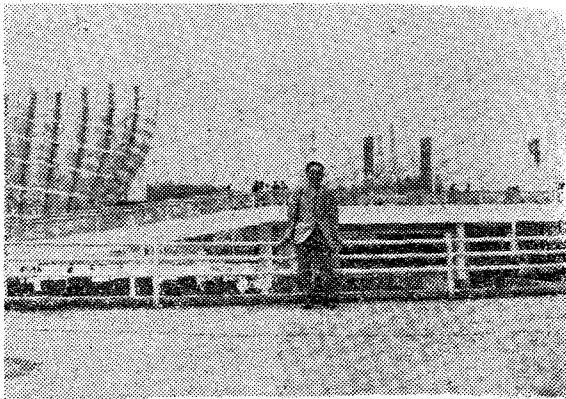


원 용 택  
〈대한사료 영업부차장〉

나는 1970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본에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비록 단시일이지만 일본에서 보고 느낀 것을 여러 축산인에게 알리고자 몇자 적어보기로 한다.

## 부러운 녹색지대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가로지르면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심연의 티끌까지 씻어버리는 상쾌감을 주지만 우리 나라의 황폐한 산야를 내려다볼 때 어딘가 답답함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보통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말지만 바다 건너 십나라 일본의 하늘을 날 때는 축산인으로서 아쉬우면서도 몽클한 그 무엇이 떠오른다. 푸르다 못해 검은 땅, 이것이 일본의 땅이다. 일본의 부강을 상징하기라도 하듯이 황토의 흙빛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저 땅, 저 풀, 저 나무



〈후지 바비리온관을 좌측에 두고〉

하나하나의 일본 농촌 발달의 기본이며 하나의 자랑거리다. 해마다 한발과 홍수를 연례행사처럼 치뤄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급해진다. 우리도 치산치수, 국토복화를 빨리 서둘러야 할텐데……

## 오사까(大阪)의 하루

오사까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서성거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도시인 전체가 자기말은 바 일에 열중하여 목적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한낮의 택시는 거의 빈차로 질주하다가도 오후 5시만 되면 몹시 바빠진다.

오후 5시! 이 조용하던 도시는 잠에서 깨어나 약동하기 시작한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거리는 삼시간에 인파로 뒤덮히고 만다. 대부분 지하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파의 물결이 휩싸일 때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 같은 착각에도 빠진다. 환락가의 중심지인 도톤호리(道頓堀)는 음식점마다 주점마다 초만원이며 먹고 마시고 얼근히 취한 남녀노유가 한덩어리가 되어 미친 것처럼 날뛰다. 여기 저기에서 밴드소리가 요란하고 옛날 군국시대의 군복을 착용한 안내원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일일이 거수 경례를 하는가 하면 바의 호스데스는 일본 고유의 화복을 입고 나막신을 짚짚 끌면서 추파를 던진다. 밤의 오사까는 먹고 마시기 위해 생겨난 도시 같다.

그래서인지 부로일럭도 세미보다는 하이부로

가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서울의 다방만큼이나 널려 있는 것이 “빠징고” “마작” “기원”이다. 다방은 별로 눈에 띄이질 않는다. 이곳에 출입하는 우리들을 눈여겨 보니 빠징고는 30대 이하의 젊은 남녀들, 마작집은 40대의 중년층이며 기원은 노령층이 비교적 많이 드나들어 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오색 네온이 휘황한 밤거리에 지친 나는 이 복잡한 도톤호리(道頓堀)를 하직하고 숙소로 향하는 택시 속에서 서울의 무교동 밤거리를 연상하며 환송소리가 절로 나왔다. “과연 금전 만능시대로구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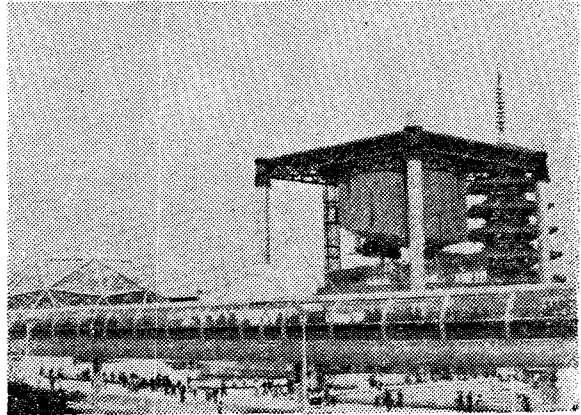
오사카는 과거 일본통치의 중심지였으며 임진왜란의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에 앉아 모든 전략을 수립하던 곳이라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과거에는 운하가 중흥으로 펼쳐 수로의 이용이 활발한 물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고속도로와 지하철이 중흥으로 누비고 있으며 지하철은 일본에서도 제일 잘되어 있다.

## 만국박람회

만국박람회장은 오사카(大阪府) 시다센리(下千里) 구릉지대로 약 330만<sup>2</sup>의 방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만박을 위하여 새로 건설된 관계로 신조 건물과 새로운 도로 포장 등이 많이 눈에 띄었다. 공개기간은 3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개월간이며 나는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을 이곳에서 지냈는데 5월 17~19일이 한국의 날이어서 정일권 국무총리가 일본에 제실 적이라 우리 한국의 활동상황이 자주 TV에 방영되었다.

회장에 도착하면 우선 다양한 건축물과 주제관의 “태양의 탑”이 시선을 끈다. 하루 입장객이 40~50만이 몰려드는데 사고 없이 질서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과거 구로동 공업단지에서 개최하였던 우리 나라 박람회를 생각하니 열褲이 뜨거워진다.

한국관은 중앙 출입구로 입장하여 대광장 서쪽에 높이 30m, 직경 4m의 검은 대원주(大圓



〈머도리관과 전력관 옆을 지나는 모노레일 관광차〉

柱) 15본으로 가로 36m, 세로 66m의 큰 지붕 밑에 현대적인 주전시관과 거북선 모양으로 된 부전시관이 있다. 에스칼레이터로 에밀레 종소리를 들으며 전시관에 들어가면 말숙한 한복의 안내장이 우리 한국은 “보다 깊은 이해와 우경”을 주제로 “인류의 진보와 조화”에 공헌하는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한다고 미소로 반겨 맞는다.

사진과 공예품 등 문화제로 차원 높은 이념의 포시는 우리가 약진하는 공업국이라는 이미지를 불어넣는 데 뚜렷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 큰 결점이라 생각하였다. 한국관에서 제일 인상이 깊고 인기있는 것은 민속무용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들도 공연이 있을 때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관람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 일본의 농촌 풍경

나는 오사카에서 나고야까지 자동차로 여행할 기회가 있어 단면적이나 농촌의 생태를 알아보았다. 일본의 유명한 비하코(琵琶湖) 옆의 아지가와(愛知川) 근처인데 약 30호 정도의 부락에 5호가 부로일터를 부업으로 약 30,000수를 기르고 있었다. 농로도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반트럭 자가용으로 누비고 다닌다. 한논에서 9명이 모를 심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은 없고 전부 나이가 50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이중 한 할아버지와 한담을 나누어 보았다.

현재의 일본은 완전히 계획생산을 하고 있으며 농촌의 전력화와 도로의 발달로 자연 기동성 있는 산업구조로 발달했고 유통과정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국동란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새삼 6.25의 비극이 실감되었다. 또한 이 할아버지는 현재 자기집에서 부로일터 6,000수를 기르고 있는데 병아리는 도쇼구(東食)회사에서, 사료는 협동조합에서 알선해 주고 질병 관계도 협동조합에서 공동구입, 공동 치료하며 생산품은 도쇼구(東食)회사로 청산하므로 자기는 병아리 구입부터 판매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사육에만 몰두한다고 한다.

일본의 생산물 유통 관계는 다음에 좀더 자세히 기술하겠다.

## 일본의 식생활

일본에 도착하여 눈에 띄이는 것은 일본 국민의 체력이었다.

언젠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일본은 8.15

전보다 신장이 평균 5cm 이상 커졌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일본인이 이렇게 체격이 월등해진 것은 곡류 중심의 식생활에서 우유, 계란,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의 이용이 급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며칠 안 되는 동안 그들의 음식을 눈여겨 보니, 아침에는 계란, 우유와 간단한 사라다 등이다. 점심은 비후스틱, 돈가스, 닭고기 등 육류에 빵을 위주로 하며, 저녁은 가끔 쌀밥이 오르는 수도 있다.

특히 닭고기와 계란의 이용을 보면 어느 음식에나 조금씩 들어가 있었으며 심지어 우동 국물을 내는 데도 닭고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닭고기 판매 과정도 우리 나라 소고기 판매와 같이 경육 판매제도여서 시각적으로도 먹음직스러웠다. 5월 27일 판매 금액이 정육 100g당 80원에, 백주 안주로 많이 이용되는 날개는 100g에 40원 기타 잡육(혼합육)이 60원이었다.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체(cut meat)의 판매제도를 택한 판계로 판매 가격 형성이 일원화된 것이다.

우리의 판매제도를 돌아볼 때 각자가 반성하여 소비자 위주의 사육 방식 및 판매를 실시하여 축산물 이용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전국 사료**

**전국배합사료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44-7 교환 ②2182-7 ②9284